

찬 송 ..... 190장 .....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광복기념주일/“자유를 사랑으로 완성하라”  
/ 사58:6-8; 갈5:13-15; 요8:34-36 >

## ✠ 교회 소식 ✠

㉠ 예배 : “**삶의 호흡이 되는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호흡입니다.  
주일의 예배로 은혜를 돌이키시고 평일의 전도로 사랑을 내쉬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 창조질서회복 설교시리즈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청지기” |                  |           |           |           |
|---------------------------------|------------------|-----------|-----------|-----------|
| 날짜                              | 제목               | 구약        | 서신서       | 복음서       |
| 7월 5일                           | 나무에게 배우는 예배      | 렘 17:7-8  | 계 22:1-2  | 막 8:22-26 |
| 7월12일                           | 흘러라, 생명의 강물아     | 암 5:24    | 계 22:17   | 요 4:13-14 |
| 7월19일                           | 흙, 생명을 품는 거룩한 터전 | 창 2:7     | 갈 6:7-8   | 막 4:3-8   |
| 7월26일                           |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 욥 4:10-11 | 롬 8:19-21 | 마 6:26    |
| 8월 2일                           |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 겔 37:9-10 | 엡 2:2     | 요 3:8     |

㉡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이단경계주일입니다.

광복기념주일 성찬식 : 9일(주) 1·2부 예배 시

㉢ 전체제직회 : 8월 2일(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긴급구호헌금 :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많은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총회와 함께 긴급구호에 동참합니다. ('구호헌금'이라 기재 / 마감 : 오늘)

㉥ 8월 한달 점심식사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5,000원에 판매합니다.  
- 오늘 메뉴 : 비빔밥(담당 : 한샘 여전도회)

㉦ 교우소식

- 장례 :故고병걸 집사(501구역, 권혜순 권사 부군), 30일(목) 별세

㉧ 교직원 휴가 : 김기복 집사, 5일(수)~8일(토)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

| 부서   | 일정                | 장소            | 주제                 |
|------|-------------------|---------------|--------------------|
| 아동부  | 8월 1~2일(토,주일)     | 아동부실 & 교회마당   |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
| 중고등부 | 7월 31일~8월2일(금~주일) | 가평 이오스펜션      | 지피지기: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다 |
| 청년부  | 8월 7~9일(금~주일)     | 횡성 현대수리조트엔제너두 | 다시 새롭게!            |



##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773호  
2026. 8. 2.  
성령강림절 후 열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에스겔 37:9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인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기후 위기라  
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바람, 생기를 뜻  
하는 '루아흐'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사방에  
서 불어온 생기(바람)를 통해 군대로 살아났고, 예수님은 거듭난의 신비를 보  
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는 바람(성령)에 비유하였습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  
는 온실가스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탐욕적인  
풍조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  
이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태적 실천과 영혼을 정화하는 기도를 통해,  
병든 세상을 환기하는 맑고 시원한 성령의 통풍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성령의 바람 경험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나뭇가지의 흔들림으로  
알 수 있듯이, 내 삶과 내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  
심을 확인했던 최근의 경험(변화, 깨달음 등)을 나누어 봅시다.
2. [세상 환기하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뿜어내는'이기심과 무한 경쟁'이라  
는 탁한 공기를 맑게 환기하기 위해, 내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맑고 따뜻한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주보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 성령강림절 후 열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 개회예전

###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 말 은 이

### <성경의 선언> (마4:4)

(목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 <개회송> (오르간)

### <오늘의 기도>

(목사)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의의 승리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행을 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 23장 ..... 다 갈 이

### <죄의 고백과 용서>

####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기도)

####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도소서.

####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 말씀예전

###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 79장 .....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 에스겔 37:9-10(1209) ..... 정학재 안수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 에베소서 2:2(310) ..... 정학재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묵 상 > ..... “죄 짐 말은 우리 구주” .....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 요한복음 3:8(145) ..... 정학재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 『하늘의 바람, 성령의 숨결』 ..... 황영태 목사

###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 목 회 기 도